

토론회가 널 모레군여. 각오들을 좀 하고 나와야 할 것 같네요. 우리의 졸업전 진행과정, 여러분들 개개인의 작업, 이 기획 자체가 비판의 도마위에 놓이게 될 것 같으니까요.

미술인회의 자유게시판에 이미 우리의 ‘씨바이벌’이라는 기획 자체에 대한 비판이 올라와 있는걸 봤습니다. 평택맨- 조감독이 쓴 글에 댓글로 달려있는 글인데 함 읽어들 보세요. 전 그 글이 일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있더군여. ‘주제가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지는 것은 미술 자체의 탐구의지와 상관 없어보인다’ 지적에 저는 동의가 안된다는 거이지요.

자신의 삶, 생존에 뿌리박지 않은 탐구나, 지식이 때로 몹시 공허하게 느껴지며 소위 ‘지식의 식민성’에 매몰되어버리는 것임을 절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지식을 따와서 자기것인 것처럼 작위적으로 의식화 하는 이런 지식, 탐구는 걸똥니다 이번 우리의 수업에서 감독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은, 이 지식의 식민성, 겉도는 지식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구적 지식’이 필요한 것까지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만 전시를 위한 준비를 하는 수업시간에 공구적 지식으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다고나 할까요?

우리의 주제 ‘씨바이벌’은 홍보과정에서 ‘미대 졸업생들의 화단에서 살아남기’라는 해석으로 단순화되는 것을 피하기는 어려웠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긴 토론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관심사로 드러난 것은 단순히 화단에서 살아남기만은 아니었지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낭비를 줄이고(쇼핑백으로 활용되는 포스터가 그 좋은 예지요?), 출전 거품비용을 걷어내고, 남은 화구를 정리,재활용하고 버틸수도 간직할 수도 없는 애물 단지가 되고마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애증을 드러내고, 무슨 경건한 종교의식의 장소를 연상시키는 ‘견딜수 없이’ 싸늘, 냉랭한 전람회장 분위기에 훈기를 불어넣고, 뭐 그런것들이지요. 감독은 ‘씨바이벌’을 ‘화단에서 살아남기’로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좀 거창하게 ‘이 지구에서 살아남기’로 해석합니다. 전 이번 우리의 졸업전을 ‘생태적 전시’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생태적 전시’를 ‘저 엔트로피 전시’라고 부연 설명해봅니다. 즉 낭비 구조를 벗어난 전시를 지향했던 얘기지요. 하나의 작품을 탄생시키기위해 무한한 물적, 심적 노력을 ‘소비-낭비’하는 미술에서 비켜선다는 의미를 가진 전시라는 거지요. 졸업전 임에도 심사제도 없이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방임’ 한 이유도 저는 ‘심리 생태적’ 배려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좀 그 용어가...거시기하지요? 작업을 독려하고, 때론 준열하게 꾸짖고, 날카롭게 비판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열과정을 쥐어짜듯 불러일으켜 소모케하는 지도방식을 저는 ‘반심리생태적’이라고 또한 이름붙여봅니다. 우리모두는 비교적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을 하며 이 전시를 준비했다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모든 가치에 우선 한다고 감독은 믿지 않습니다. 하나의 정련된 예술 작품을 위하여 많은 재화와 재능이 과도하게 소비되는 것에 감독은 부정적입니다.

제 목소리가 너무 크군요. 앞서 미술인회의 자유게시판에 어느분이 ‘주제가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지는 것은 미술자체의 탐구의지와 상관 없어보인다’ 라는 비판을 했다고 말했지요? 감독은 거기에 대해 “우리가 각각의 작품으로 풀어낸 씨바이벌이란 주제는 저 엔트로피적

생태미술을 지향하는 주제이며 이것은 ‘고 엔트로피를 불사하는 미술’에 대한 에코 페미니즘적 탐색 의지의 몸짓이다”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이거 너무 개념어의 남용으로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 기획에 대한 감독의 뜻은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업이 ‘그 어떤 기준’에 의해 좀 비판을 받더라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작업은 어찌다 좋게 나올수도 있고 좀 덜 좋게 나올수도 있는 거니까요. 감독은 여러분들이 졸업전시를 통해 즐겁게 작업하고- 살고, 재화와 재능을 남용하지않는 작업을 하고-살고, 저 엔트로피적 생태미술-삶에대한 체험을 ‘신체에 각인’시키게 되길 바랍니다.